

# 2013년 중소기업 설비투자 전망조사

---

2013. 3. 7

**IBK경제연구소**

(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)

직	성명	전화
팀장	김계엽	729-6588
팀원	안병립	729-6892

# 목 차

## <2013년 중소기업 설비투자 전망조사 결과 요약>

### I. 2013년 중소기업 설비투자 전망

- 1. 중소기업 설비투자 전망 ..... 1
- 2. 업종별 설비투자 전망 ..... 2
- 3. 설비투자 실시 사유 ..... 3
- 4. 설비투자 미실시 사유 ..... 4

### II. 2013년 자산형태별 및 자금조달 원천별 설비투자

- 1. 자산형태별 설비투자 ..... 5
- 2. 자금조달 원천별 설비투자 ..... 6

### III. 2013년 중소기업 설비투자 여건

- 1. 설비투자 의사결정 요인 ..... 7
- 2. 은행을 통한 설비투자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 · 8
- 3.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바라는 사항 ..... 9
- 4. 동종업계의 설비투자 전망 ..... 10
- 5. 설비투자 확대시점 전망 ..... 11

## <부 록>

## 중소제조업 설비투자, 크게 위축될 전망

- 2013년 설비투자를 계획 중인 중소기업체는 전년(35.2%)대비 8.4%p 감소한 26.8%로 나타남
  - 저성장세 지속으로 수요 회복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체들은 설비투자 계획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으로 분석
    - 규모별로는, 중기업(60.0% → 49.2%)과 소기업(29.3% → 21.5%) 모두 전년 대비 감소
    - 업종별로는, 1차금속(42.0% → 29.0%), 기타운송장비(26.9% → 14.3%) 등 대부분 업종의 설비투자 계획이 전년대비 감소
  
-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'노후설비의 개체 및 보수'로 나타났으며, 설비투자를 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'기존 설비만으로 충분'으로 나타남
  - 설비투자 실시 사유 중 '노후설비의 개체 및 보수' 응답비율 : 59.0% ('12) → 53.0% ('13)
  - 설비투자 미실시 사유 중 '기존 설비만으로 충분' 응답비율 : 70.0% ('12) → 73.3% ('13)
  
- '기계장치', '건물 및 구조물' 등 대부분의 자산에 대한 투자계획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차입을 통한 투자 계획 비율도 감소
  - '기계장치'에 대한 설비투자 실시예정 비율 : 80.9% ('12) → 77.1% ('13)
  - '건물 및 건축물'에 대한 설비투자 실시예정 비율 : 27.0% ('12) → 19.8% ('13)
  - 차입을 통한 설비투자 계획 비율 : 29.6% ('12) → 27.7% ('13)
  
- 설비투자 의사결정 요인으로는 '내수경기'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,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'내수경기 부양', '조건이 양호한 정책자금 공급' 등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
  - 설비투자 의사결정 요인 중 '내수경기' 응답비율: 68.5% ('12) → 69.6% ('13)
  -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건 중 '내수경기 부양' 응답비율 : 54.4% ('12) → 55.4% ('13)

# I. 2013년 중소기업 설비투자 전망

## 1. 중소기업 설비투자 전망

- 2013년 중소기업 설비투자 실시예정 업체비율은 26.8%로 전년 (35.2%)대비 8.4%p 감소
  - [규모별] 중기업(60.0% → 49.2%)과 소기업(29.3% → 21.5%) 모두 전년대비 감소
  - [형태별] 가공조립형(37.9% → 27.8%), 기초소재형(35.7% → 28.6%) 및 생활 관련형(30.7% → 23.7%) 모두 전년대비 감소
  - [산업별] 중화학공업(38.0% → 28.5%)과 경공업(30.4% → 23.9%) 모두 전년 대비 감소

중소기업 설비투자 실시예정 업체비율 추이

(단위 : %, 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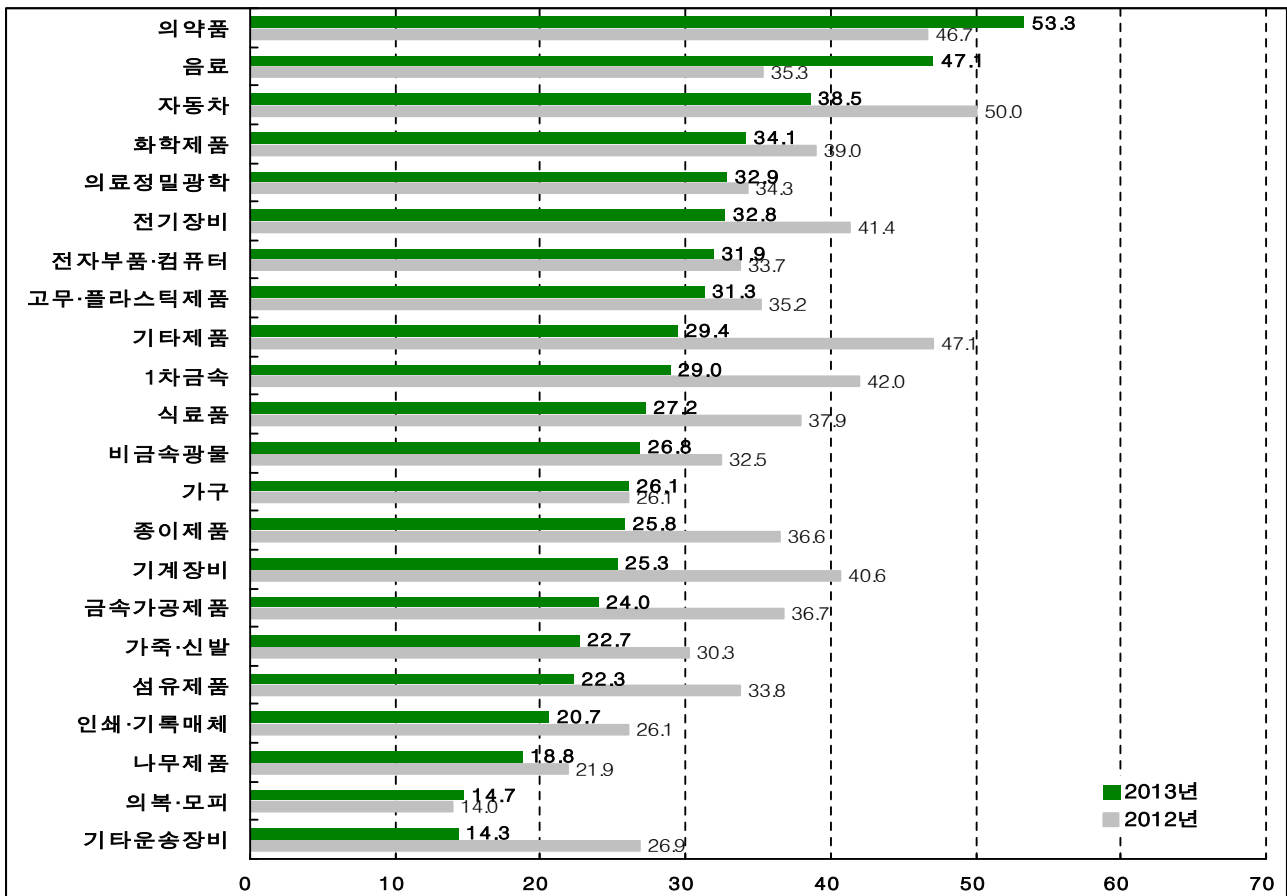
		2007년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(전망)		
								상반기	하반기	
전 체		41.4	42.3	28.6	32.2	36.3	35.2	<b>26.8</b>	23.7	17.5
규모별	소 기 업	38.0	36.4	24.9	31.1	30.6	29.3	<b>21.5</b>	18.6	13.1
	중 기 업	68.6	69.2	41.5	47.9	60.3	60.0	<b>49.2</b>	45.7	36.7
형태별	가공조립형	44.6	45.2	26.8	33.4	39.1	37.9	<b>27.8</b>	25.1	19.3
	기초소재형	45.3	43.3	32.0	33.7	37.3	35.7	<b>28.6</b>	25.4	19.0
	생활관련형	34.3	37.2	28.4	29.1	31.3	30.7	<b>23.7</b>	20.1	13.7
산업별	중화학공업	45.2	45.8	29.4	34.3	39.3	38.0	<b>28.5</b>	25.5	19.6
	경 공 업	35.9	36.8	27.3	28.6	31.1	30.4	<b>23.9</b>	20.6	14.0

## 2. 업종별 설비투자 전망

- 업종별 설비투자 실시예정 업체비율은 1차금속(42.0% → 29.0%), 기타 운송장비(26.9% → 14.3%), 섬유제품(33.8% → 22.3%)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대비 감소

업종별 설비투자 업체비율

(단위 :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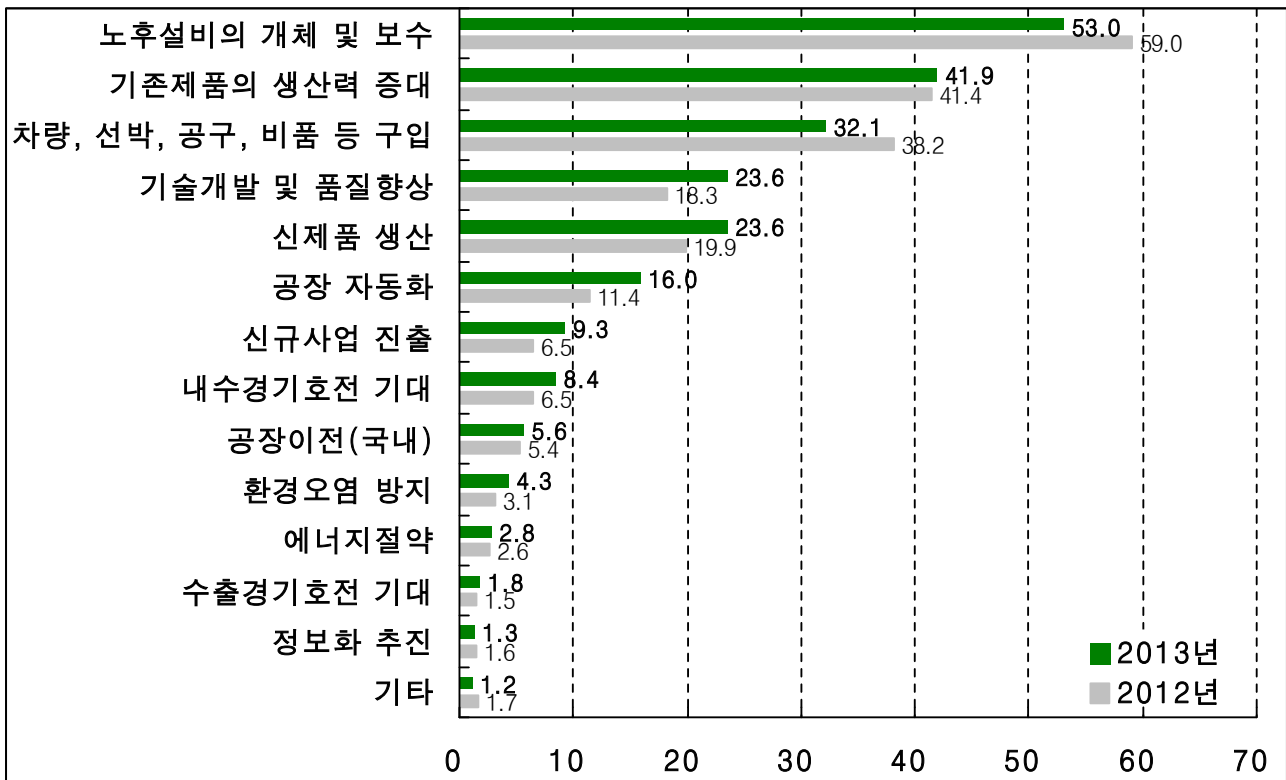


### 3. 설비투자 실시 사유

- 2013년에는 ‘노후설비의 개체 및 보수’, ‘기존제품의 생산력 증대’ 등의 사유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
  - ‘기존제품의 생산력 증대’(41.4% → 41.9%), ‘기술개발 및 품질향상’ (18.3% → 23.6%) 등으로 인한 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,
  - ‘노후설비의 개체 및 보수’(59.0% → 53.0%), ‘차량, 선박, 공구, 비품 등 구입’ (38.2% → 32.1%) 등으로 인한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

설비투자 실시 사유

(단위 : %, 복수응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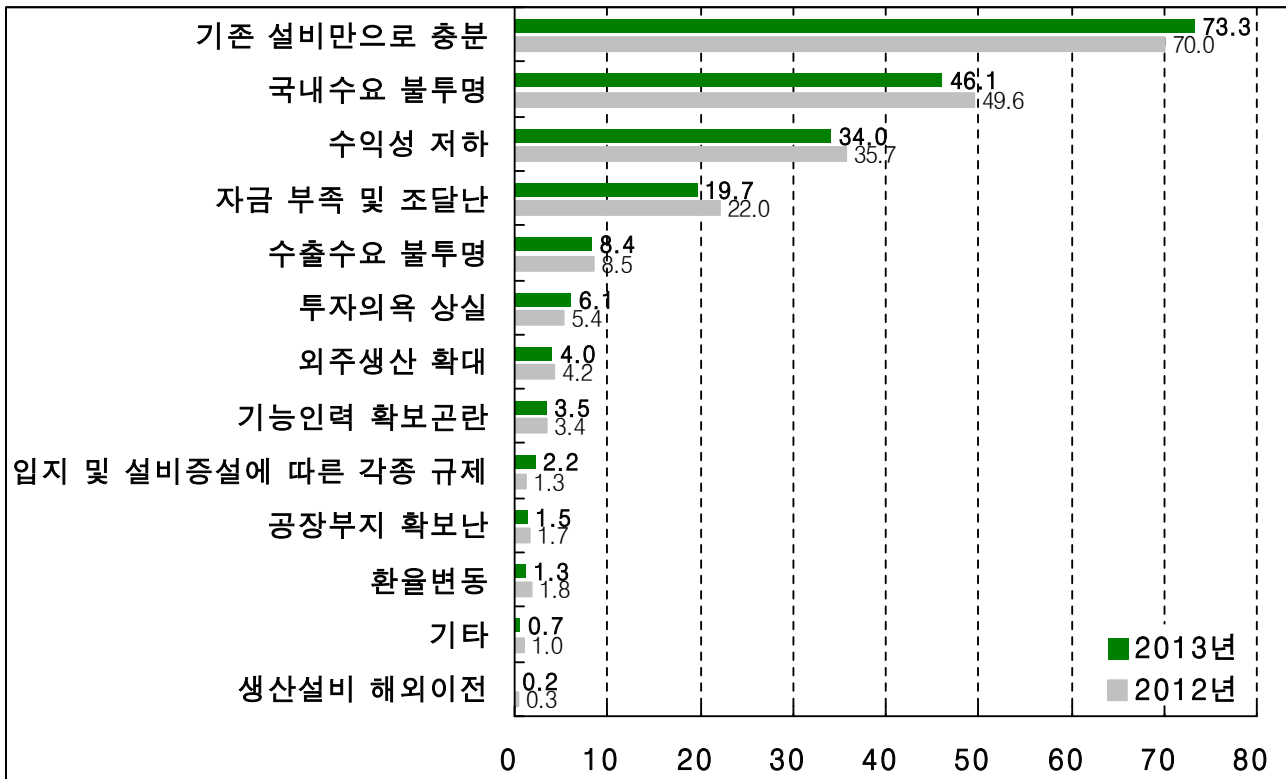
#### 4. 설비투자 미실시 사유

□ 2013년 설비투자 미실시 사유는 '기존 설비만으로 충분', '국내수요 불투명' 등의 순으로 나타남

- '기존 설비만으로 충분'(70.0% → 73.3%), '투자의욕 상실'(5.4% → 6.1%) 등의 응답비율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,
- '국내수요 불투명' (49.6% → 46.1%), '수익성 저하'(35.7% → 34.0%) 등의 응답비율은 감소

설비투자 미실시 사유

(단위 : %, 복수응답)



## II. 2013년 자산형태별 및 자금조달 원천별 설비투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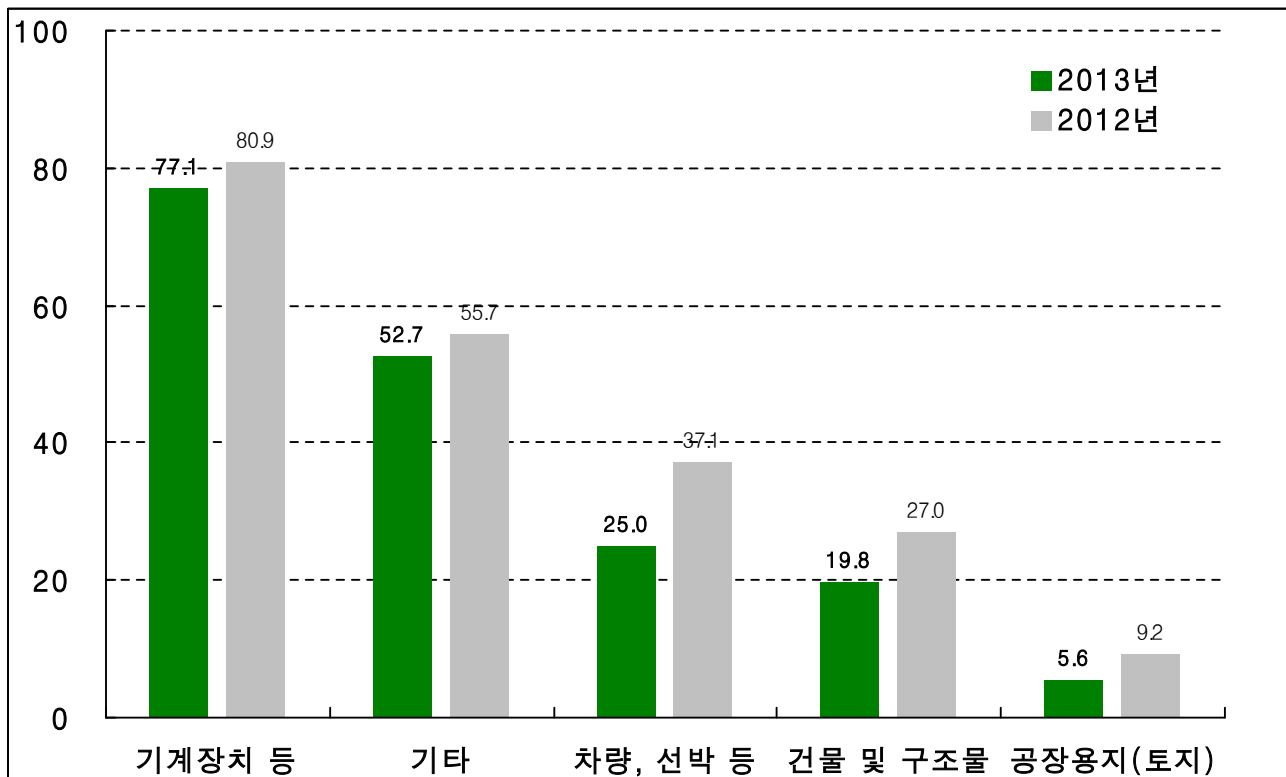
### 1. 자산형태별 설비투자

□ '기계장치', '차량·선박' 등 대부분의 자산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

○ '기계장치'(80.9% → 77.1%), '차량·선박'(37.1% → 25.0%) 및 '건물 및 구조물' (27.0% → 19.8%) 등 모든 자산에 대한 투자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

자산형태별 설비투자 비율

(단위 : %, 복수응답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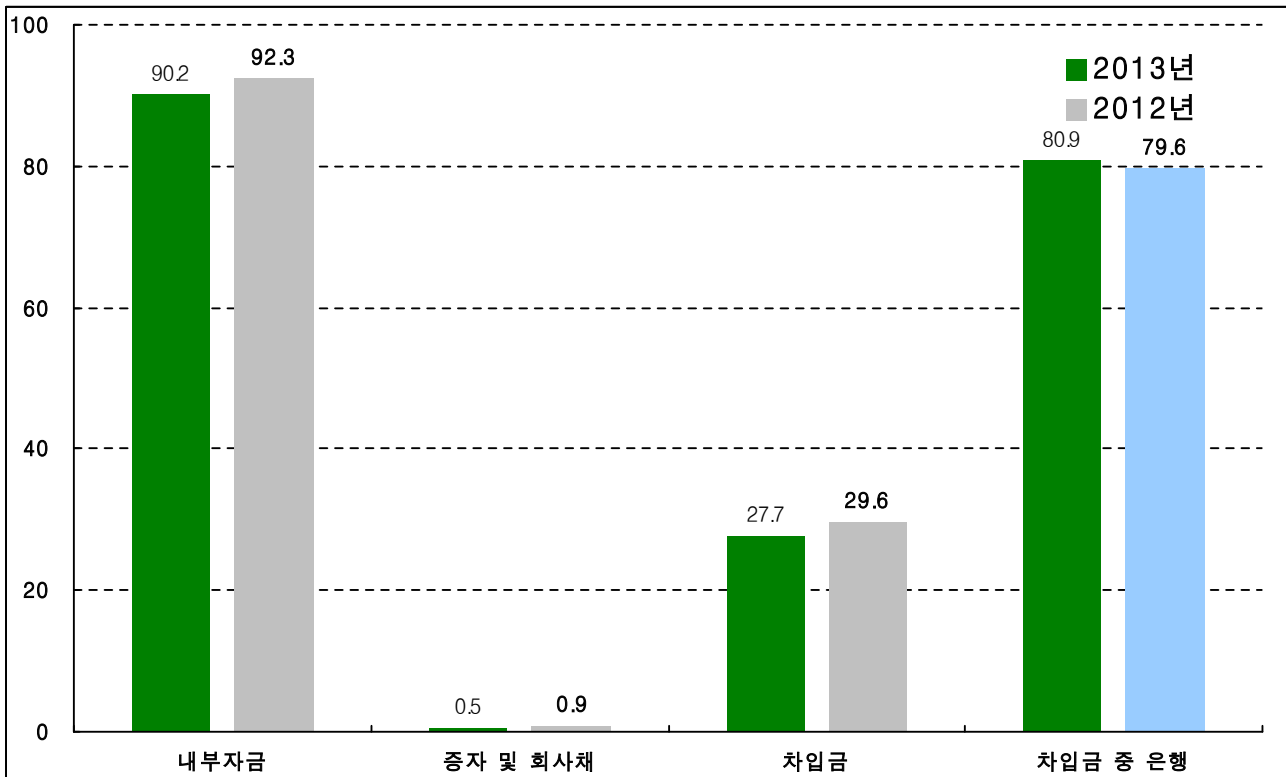
## 2. 자금조달 원천별 설비투자

□ 2013年中 설비투자는 대부분 '내부자금'을 이용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

- '내부자금'(92.3% → 90.2%)을 이용한 투자의 비율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,
  - '차입금'(29.6% → 27.7%), '증자 및 회사채'(0.9% → 0.5%) 등 외부자금을 이용한 투자의 비율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
- 다만, '차입금' 중 은행을 이용한 차입의 비율(79.6% → 80.9%)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

설비투자 실시업체의 자금조달 원천별 비율

(단위 : %, 복수응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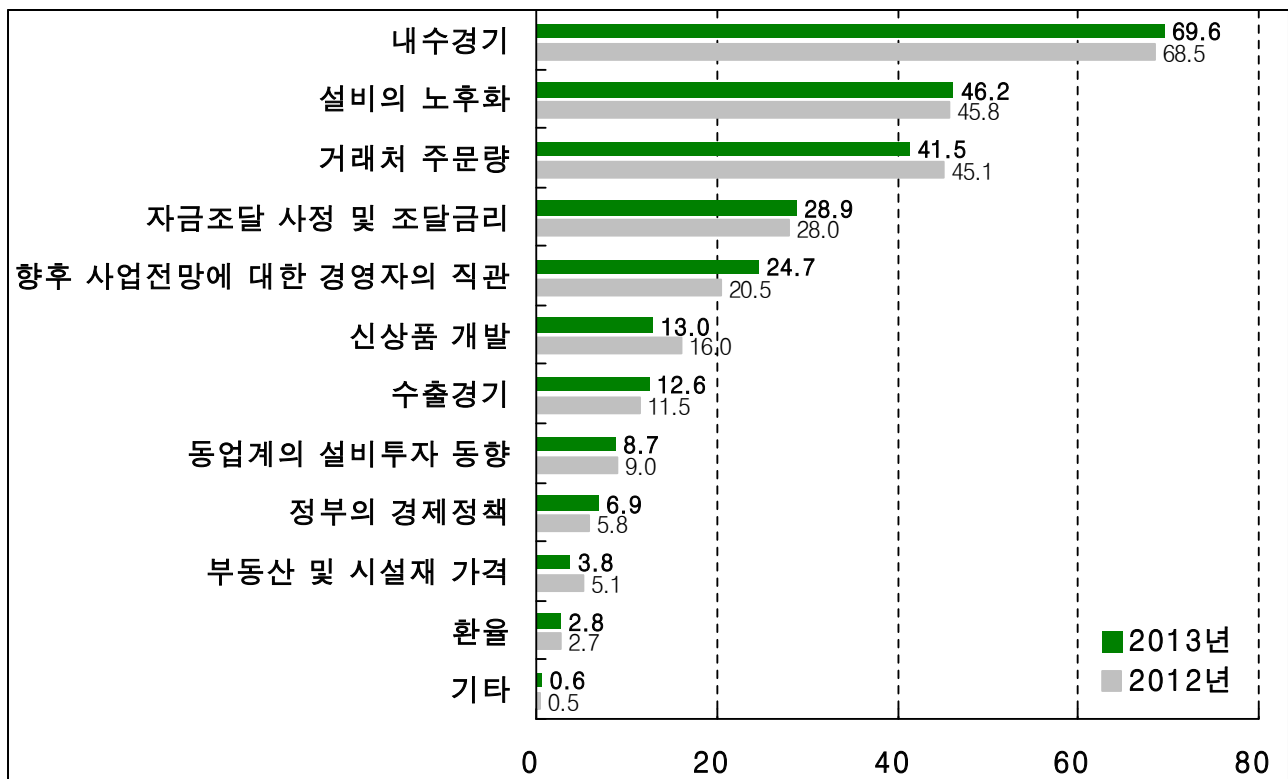
### III. 2013년 중소기업 설비투자 여건

#### 1. 설비투자 의사결정 요인

- 2013년 中 설비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주요요인은 '내수경기', '설비의 노후정도', '거래처 주문량' 등의 순으로 나타남
- '내수경기'(68.5% → 69.6%), '설비의 노후화'(45.8% → 46.2%)의 응답비율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,
- '거래처 주문량'(45.1% → 41.5%), '신상품 개발'(16.0% → 13.0%)의 응답비율은 감소

설비투자 의사결정 요인

(단위 : %, 복수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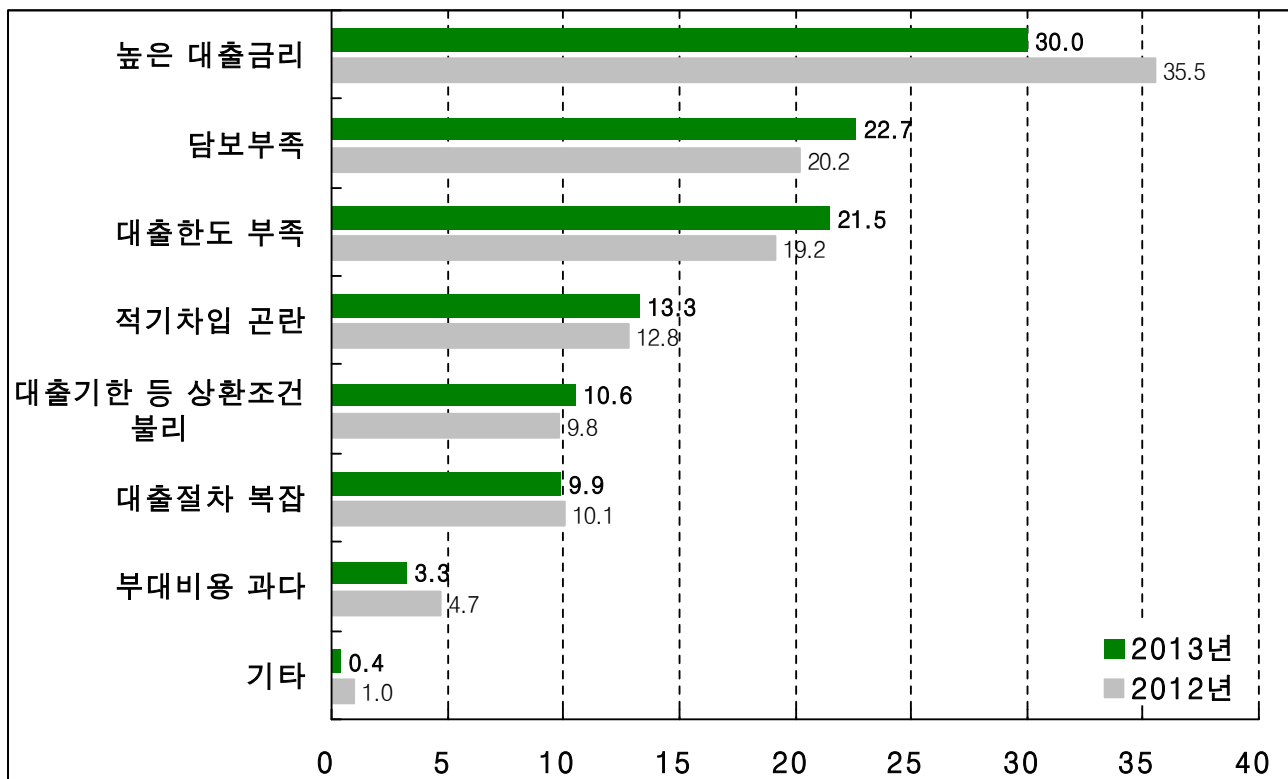


## 2. 은행을 통한 설비투자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

- 설비투자 자금조달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'높은 대출금리'로 나타났으나, 전년에 비해 응답비율은 크게 감소
  - '담보부족'(20.2% → 22.7%), '대출한도 부족'(19.2% → 21.5%) 등의 응답비율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,
  - '높은 대출금리'(35.5% → 30.0%)의, '대출절차 복잡'(10.1% → 9.9%) 등의 응답비율은 감소
- '높은 대출금리' 외에도 '담보부족', '대출한도 부족'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남

설비투자 자금의 은행조달 시 애로사항

(단위 : %, 복수응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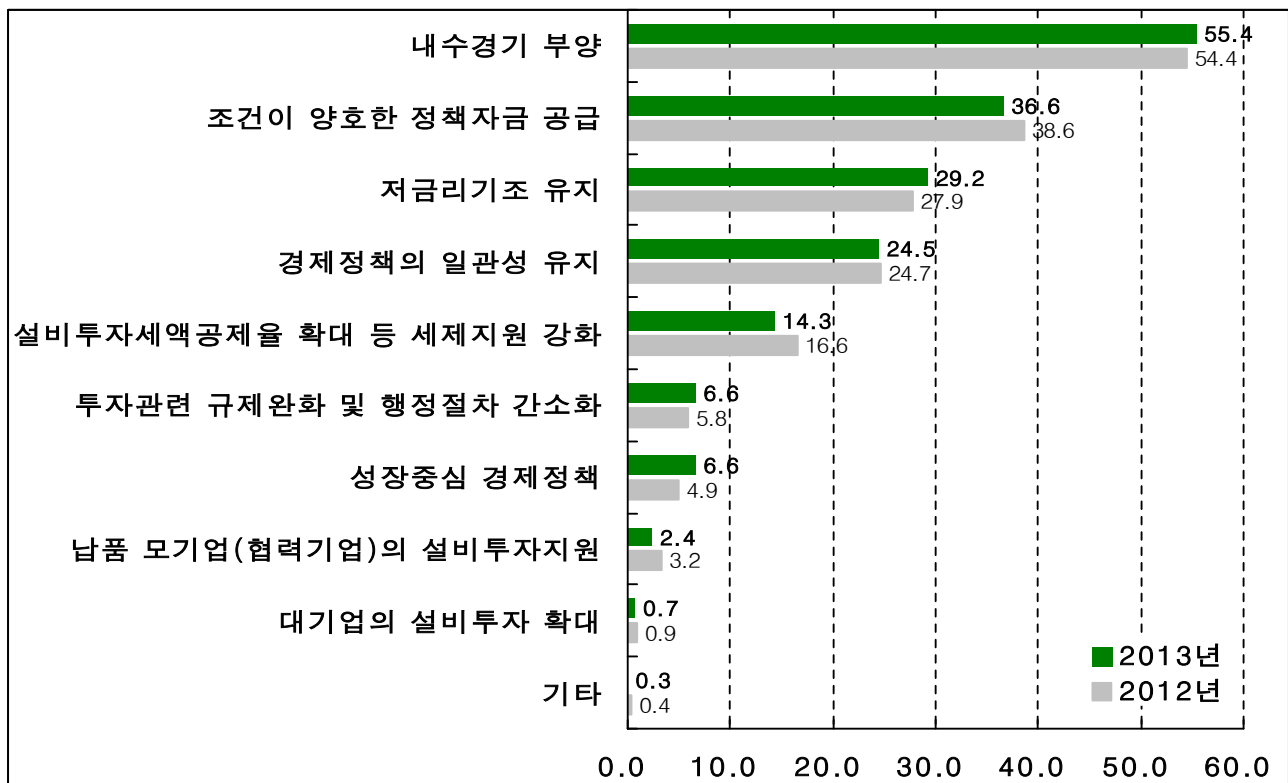
### 3.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바라는 사항

□ 설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'내수경기 부양', '조건이 양호한 정책 자금 공급'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

- '내수경기 부양'(54.4% → 55.4%), '저금리기조 유지'(27.9% → 29.2%)의 응답비율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,
- '조건이 양호한 정책자금 공급'(38.6% → 36.6%), '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'(24.7% → 24.5%) 등의 응답비율은 감소

설비투자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책당국에 바라는 사항

(단위 : %, 복수응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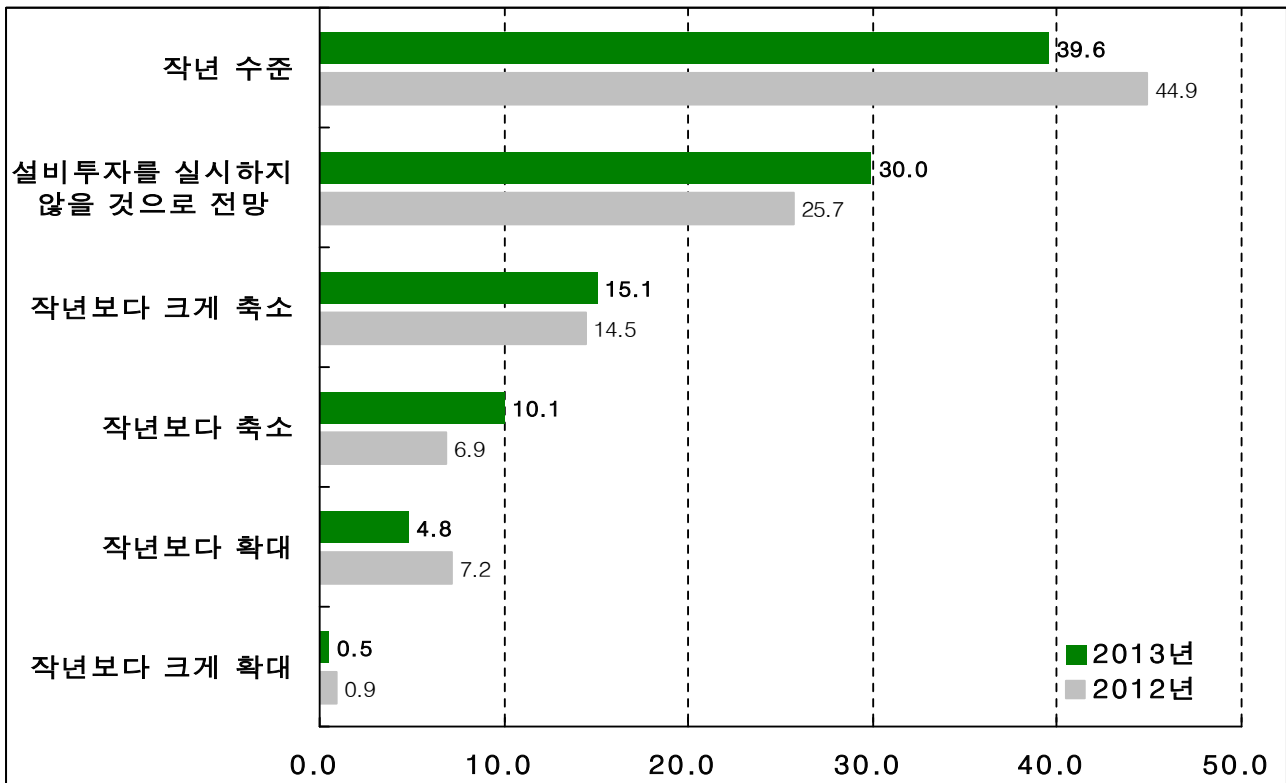
#### 4. 동종업계의 설비투자 전망

□ 동종업계의 설비투자는 '작년 수준'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

- 설비투자를 실시하지 않거나(25.7% → 30.0%) 작년보다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 업체비율(14.5% → 15.1%)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,
- 작년 수준을 유지하거나(44.9% → 39.6%) 작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업체비율(7.2% → 4.8%)은 감소

동종업계의 설비투자 전망

(단위 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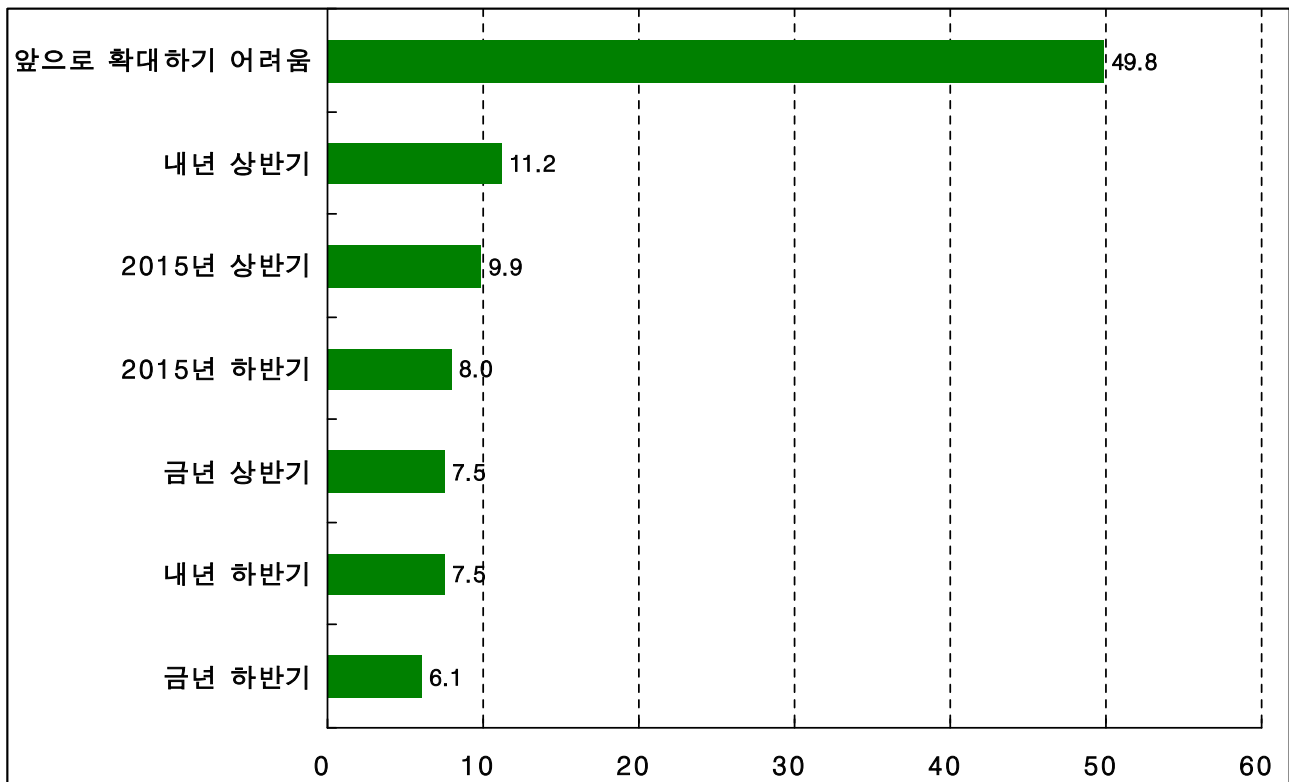


## 5. 설비투자 확대시점 전망

- 향후 설비투자 확대시점은 '앞으로 확대하기 어려움'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
  - 상당수 중소기업체는(49.8%) 앞으로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어렵다고 응답

설비투자 확대시점 전망

(단위 : %)



## <부 록> 조 사 개 요

### □ 조사목적 및 조사결과 공표

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 실태를 파악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과 당행 금융업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, 조사결과는 IBK기업은행 홈페이지(www.ibk.co.kr)에 공표

### □ 조사지역, 대상 업체 및 응답률

- 조사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종사자수 5~300인 미만 중소기업체 가운데 업종 및 종사자 수를 감안해 3,070개 사업체를 선정
- 2013년 중소기업 설비투자 전망조사 응답률 : 88.4%

### □ 조사표본 구성

- 모집단 : 통계청 '광업·제조업통계조사'의 종사자수 5~300인 미만 중소기업체
- 표본 : 중소기업 24개 업종 중 담배제조업(12), 코크스·연탄·석유정제품제조업(19)을 제외한 22개 업종을 종사자 규모별로 6개 구간으로 세분한 132개 층에서 단순임의추출

### □ 조사방법 : 임시조사원이 조사대상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작성 후 회수

### □ 조사실시 기간 : 2013년 2월 1일 ~ 2월 18일

### □ 특수 분류기준

#### ○ 산업별

- 경공업 : 식료품 제조업(10), 음료 제조업(11), 섬유제품 제조업 ; 의복제외(13),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(14),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(15),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; 가구 제외(16),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18),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22)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21), 가구 제조업(32), 기타 제품 제조업(33)
- 중화학공업 :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17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; 의약품제외(20)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21),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23), 1차 금속 제조업(24)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; 기계 및 가구 제외(25)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26),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(27), 전기장비 제조업(28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30),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31)

#### ○ 형태별

- 가공조립 :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; 기계 및 가구제외(25)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26),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(27), 전기장비 제조업(28),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29)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30),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31)
- 기초소재 :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; 가구제외(16),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(17)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; 의약품 제조업(20),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(22),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(23), 1차 금속 제조업(24)
- 생활관련 : 식료품 제조업(10), 음료 제조업(11), 섬유제품 제조업 ; 의복제외(13),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(14),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(15),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18)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(21), 가구 제조업(32), 기타 제품 제조업(33)

○ 규모별

- 종사자수 기준 : 소기업(5~49인), 중기업(50~299인)

□ 산업분류 명칭 안내

○ 본 보고서에 사용한 제조업 산업분류 명칭은 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분류명이 너무 길어 아래와 같이 약칭을 사용

산업분류 부호	본 보고서에 사용한 산업분류명	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명
C10	식료품	식료품 제조업
C11	음료	음료 제조업
C13	섬유제품	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제외
C14	의복·모피	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
C15	가죽·신발	가죽, 가방 및 신발제조업
C16	나무제품	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; 가구제외
C17	종이제품	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
C18	인쇄·기록매체	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
C20	화학제품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제외
C21	의약품	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
C22	고무·플라스틱제품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C23	비금속광물	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
C24	1차금속	1차금속 제조업
C25	금속가공제품	금속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제외
C26	전자부품·컴퓨터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C27	의료정밀광학	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
C28	전기장비	전기장비 제조업
C29	기계장비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C30	자동차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C31	기타운송장비	기타운송장비 제조업
C32	가구	가구 제조업
C33	기타제품	기타제품 제조업